

기획-국캠 장애인 시설 점검

7

보행장애 학생용 편의시설 개선 필요

서나는 기자 merlo@khu.ac.kr
정예는 기자 yegold@khu.ac.kr

우리학교는 지난 2020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양캠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 국립 특수교육원 주관 하에 이뤄지는 해당 평가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진행되며,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 등 세 가지 평가 영역 중 시설·설비 영역은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에는 현재 진행 중인 202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와 관련해 국제캠캠퍼스(국제캠) 내 장애인 시설·설비 현황을 짚어봤다.

캠퍼스 내 통행 쉽지 않아

국제캠에는 휠체어나 목발 이동이 어려운 가파른 언덕길과 계단이 캠퍼스 곳곳에 존재한다. 일반 보행 통로는 물론, 각 건물까지의 진입로가 가파른 단과대학이 많다. 수동휠체어의 자가주진만으로는 통행이 쉽지 않다. 비장애인에게도 버거울 정도의 언덕길과 샅길은 장애인의 이동 가능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일례로 도예관으로 향하는 오르막에서는 보도의 패임이 발견됐다.

보행 장애 학생은 출입이 불가한 수준의 건물들도 존재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등의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건축물 접근로 및 주 출입구는 건물로 진입하기 위한 첫 단계이기에 그 상태가 장애인 통행에 적합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어대학(외대), 체육대학(체대)의 출입구 앞에는 경사로를 비롯한 어떠한 매개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다. 외대 주 출입구로 통하는 계단은 높고 가팔라 보행 장애 학생은 이를 통한 건물 출입이 사실상 불가하다. 유일하게 평지로 출입이 가능한 C동 출입구는 강의동이 아닌 언어교육원으로 통한다.



사진 ① 계단 외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외대 정문의 모습이다. 사진 ② 정문 오른쪽 쪽문에는 늘 자전거와 킥보드가 무단 주차돼 있어 출입이 불가하다. 사진 ③ 우정원 앞 경사로에는 보행 장애 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호출 벨이 설치돼 있다. (사진=서나는 기자, 정예는 기자)

체대도 마찬가지다. 건물 출입구로 향하는 길은 전부 계단이며 경사로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더불어, 국제캠은 정문도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한 통행이 어렵다. 정문 오른쪽에 경사로와 이어지는 쪽문이 존재하지만 자전거나 킥보드 등 보행 장애물로 통행이 쉽지 않다.

내부 시설 접근성도 개선 필요해

건물 내부 설비도 보행 장애 학생의 이동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

▲외대 ▲국제대학 ▲체대 건물에는 내부 경사로나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보행 장애 학생은 주변인의 도움이 없다면 강의실까지 가는 길도 쉽지 않다.

외대 재학생 A 씨는 다리를 다쳐 얼마 전까지 목발을 사용해야 했다. A 씨는 목발을 짚은 채로 계속해서 계단을 이용해야 했고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시험 기간에는 외대 내에 있는 열람실까지 접근이 어려워 학교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다”며 “다리를 다친 상태로 이동하기가

정말 힘든 구조였다”고 전했다. 이어 A 씨는 “저는 잠시의 불편함이었지만 보행 장애 학생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내부 시설 개선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덧붙였다.

장애 학생은 화장실 이용까지 제한받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이다. 해당 법률의 시행규칙에 의하면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통로에 연결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학교에는 이와 같은

시행 규칙에 어긋나는 건물이 일부 존재한다. 특히 학생식당이 위치해 보행 장애학생도 이용하는 제2기숙사 여자동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잠겨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장애대학생과 함께하는 대학, 꾸준히 개선돼야

우정원 입구에는 장애인 출입구와 화장실이 표기된 안내 표지판이 존재한다. 우정원으로 내려가는 길 앞에는 장애인 도움 호출 버튼이 설치돼 있어 보행 장애 학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있다. 반면 캠퍼스 가장 안쪽에 위치한 전자정보대학까지 향하는 오르막길은 가파름에도 불구하고 보행 장애 학생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없다.

「장애인등편의법」 제4조에 따르면,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우리신문은 국제캠 곳곳에서 보행 장애 학생의 권리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시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장애 학생의 학내 접근성은 학습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지난 2020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우리학교는 ‘최우수’ 등급 아래 단계인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내·외부 시설 ▲매개시설 ▲장애학생의 시설설비 만족도 등 시설 관리 부분에서 감점됐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및 보수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시설팀에서도 협조해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특수교육원에 의하면 현재 대학에 진학하는 장애학생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장애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 이에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 및 장애학생 지원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으로 접근 자체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각 대학 현장조사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결과 공표는 오는 2024년 1월에 있을 예정이다.